

중국 현대 건축문화의 일면, ‘부정진젠주’

황문호
청화대학교 건축학원
박사과정

중국의 독특한 컨템포러리 건축문화 현상 가운데 주로 상업·종교의 기능을 지닌 특이한 형태의 ‘부정진젠주(不正經建築, 부정경건축)*’이라 불리는 건축 유형이 있다. “정도(正道)가 아닌 모습의 건축”이라는 뜻으로 외형이 괴이하거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지니며 유명 작품을 그대로 따라 한 이미테이션이나 대상의 일차적 모방을 통한 유치한 설계 표현으로 비평가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지만 한편으로 일반 서민들이나 여러 지방 정부와 민민들에게서 환영받는 이 건축 현상을 이제는 중국의 대중문화의 일반으로 보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21세기 중국에서 나타나는 19세기 후반 유럽의 키치(kitsch)**와 같은 이 건축 문화 현상에 대해 신호등 역할을 할 비평 이론이 부재한 현대 중국 건축문화의 상황을 살펴본다.

부정경건축 경향과 분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의 SNS 사용이 통제된 중국에서는 휴대폰을 통한 SNS매체로서 위챗(We Chat, 微信)이라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가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보다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다. 각종 분야에서 위챗을 통해 소통이 이뤄지고, 위챗 내의 ‘궁중하오(公众号)’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과 단체에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소리를 내고 있다. 부정경건축도 이와 같은 플랫폼에서 이름 붙여져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다. ‘부정경(不正經)’이라는 것은 바른 길(正道)을 가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로, 이 유형들의 건축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원어의 발음(부정진젠주)을 살려 적는 것이 표기상 원칙이나, 독자 이해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이하 본문에서는 우리말 독음(부정경건축)으로 적는다.

** 19세기 후반 뮌헨 미술 서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의 아카데미한 그림들과 비교되어 그림 시장을 겨냥하여 기도된 것으로, 고결함과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작품들과 또 감상적 부르주아의 동경을 만족시켜 주었던 작품들을 ‘키치’라는 단어를 통해 도덕적 비난의 의미로 불렀다.



자하 하디드의 왕징 소호(좌)와 충칭메이취안 22세기 프로젝트(우) 계획

자료: 李文婷, 张杰, 刘宗轩(2013), “走出山寨建筑怪圈——中国建筑设计发展路在何方” 재인용

부정경과 비슷하게 ‘추한 건축’이란 뜻으로 ‘추우러 우젠주(丑陋建築)’라는 단어도 쓰인다. 매년 인터넷 상에서 거행되는 ‘중국 10대 추한 건축 선정 투표’^{*}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의 외관이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건축으로 렘 쿨하스(Rem Koolhaas)가 설계한 중국국영방송(CCTV) 본사 사옥도 이름을 올리며, ‘부정경’이라는 수사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한다. 시각적으로 추하다는 것과는 다르게 ‘옳지 않은 건축’, 즉 키치의 속성을 지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 더 부합한다.

부정경건축으로 분류된 건축들을 대략적으로 그 표현 기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자이(山寨)^{**} 건축

흔히 말하는 ‘짝퉁’ 건축물이다. 기존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재창조가 아니라 형태를 그대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겉모양만 따라 하고 내부의 형태나 기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2012년 5월 ‘표절됨(被抄袭了)’이라는 제목으

로 중국 대표 인터넷 포털 웨이보(微博)에 자하 하디드의 베이징 ‘왕징 소호(望京 SOHO)’ 프로젝트를 충칭(重庆)시의 한 개발사가 표절하였다고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다. ‘충칭메이취안 22세기(重庆美兰 22世纪)’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던 이 개발사는 신문발표회에서 자하 하디드의 작품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충칭을 지나 흐르는 장강 강변의 거위알돌(鹅卵石)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아직까지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지금은 철거되고 없지만 이미 1990년대 중반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郑州) 시에는 르 코르뷔지에의 룡상성당을 그대로 베껴 만든 고깃집이 있었다. 유명세를 탄 뒤 르 코르뷔지에 재단의 분노를 얻어

^{*} 2010년부터 인터넷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실제적 권위는 없지만 그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 국내 건축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다. (<http://www.archcy.com/votes> 2010中国十大丑陋建筑候选名单)

^{**} 원래 산촌, 산적들의 소굴이라는 뜻인데 20세기 말 중국문화의 키워드로서 모조품, 복제품, 짝퉁 혹은 창조적 모방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철거되었지만, 지금처럼 3D 스캐너와 설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당시 제작하는 이들이 룡상 성당과 똑같이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중국 전통 서법 가운데 하나인 임서론(臨書論)과 함께 큰 이슈가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렌조 피아노(Renzo Piano)의 풍피두센터를 모방한 충칭의 한 실내 인테리어 회사도 근래에 세계 유명 건축정보 사이트인 아키데일리(ArchDaily)에 소개되며 유명세를 탔다.

그런데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정부가 주재하는 여러 관방 건물에도 이러한 이미테이션 건축물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내 여러 건축가와 비평가들로부터 ‘창의성을 완전히 상실한 최악의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팽창(膨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들을 따라서 건축물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 모양 그대로 팽창시켜 내부에 실내 공간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통해 상업용 건물들처럼 대상을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이용하기도 한다.

베이징 근교의 천자호텔(燕郊天子大酒店)은 2011년 중국 10대 추한 건축 투표에서 1등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복, 출세, 장수를 상징하는 중국 전통의 세 신선들의 채색 인물상으로 외형이 구성되어 있으며,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다. 추한 건물로 선발되었지만 실제 지역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표지성 건물로 환영받고 있다.

이 외에 구이저우성(贵州省)의 차문화진열관처럼 차주전자를 모티프로 하거나 금괴 같은 오브제를 건축물의 형태로 설계한 경우도 있다.

중서합벽(中西合璧)

중국의 근대 건축가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여 서구의 건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등장한 절충식 건축들



Zhengzhou시에 소재하였던 모방 건축물(좌)과 룡상성당



충칭 소재의 모방 건축물(좌) 풍피두센터(우)



세 신선이 서 있는 모양의 천자호텔(상)과 차 주전자 모양을 한 차문화진열관(하)

이 20세기 중국 근대 건축사의 주요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주요 대학의 각 중심 건물들과 미술관 도서관 같은 공공건물에서 전통 지붕 양식으로 덮인 현대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 자금과 투자 능력이 있는 개인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이 나타났는데, ‘중서합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중국과 서양식의 벽을 합쳐서 만든 것들이다. 일례로 중국 천단(天壇)의 기년전(祈年殿)과 르네상스 건축을 대표하는 브라만테



천단의 기년전과 템피에토를 조합한 건축물(좌)과 SIAS국제학원의 외형(우)



(Bramante)의 템피에토(Tempietto)를 변형하여 붙여 놓은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허베이성(河北省) 스자좡(石家庄) 시의 신창청귀지잉스청(新长城国际影视城) 내에 위치하며, 영화 세트장의 기능으로 만들어졌다. 허난성 정저우 시에 위치한 SIAS 국제학원 건물도 대표적 사례이다. SIAS 국제학원은 순수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사립대학으로, 정저우 대학교와 포트헤이스 주립대학교(Fort Hays State University)가 합작하여 건물을 만들었다. 서쪽 면은 일반적인 미국 대학들의 신고전주의 건물을 모방하고, 동쪽 면은 처마 곡선이 평평한 중국 선진 시대에 등장하는 전통 건축 양식으로 표현하였다. 조합의 발상이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 정제되지 못한 모방 기술 수준 등으로 혹평을 받고 있다.

쉽고 간단한 문자 표현

언어가 갖는 속성 중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문자인데, 구체적인 사물이 아닌 추상적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중국에서 ‘간(干)’이라는 문자는 무엇을 한다는 ‘do’의 의미와 유사하게 쓰인다. 흔히 글자의 조합을 통해 ‘힘들게 일한다(苦干)’, ‘교묘히 일한다(巧干)’, ‘성실히 일한다(实干)’처럼 힘써 일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 때문에 랴오닝성(辽宁省)

의 한 촌락에서는 30년간의 노력 끝에 가난하였던 촌락을 100대 부유 촌락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한 것을 기념하여 마을 광장에 ‘간(干)’ 문자를 세워 놓고 문화광장을 만들었다. 지금은 랴오닝성에서 많은 학교나 기업 단체들이 와서 참관하는 상징적 명소가 되었다.

허베이성 이현(易县) 후산(后山)에 있는 나이나이묘(奶奶庙)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표현 방법을 통해 부정경건축의 전형을 보여준다. 묘의 정전에는 ‘正殿’이라는 네온사인 간판이 붙어 있다. 각 신선들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부호(符号)들로 꾸며지는데, 설계자와 수용자가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표현 수단인 문자를 이용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낸다. 언뜻 보면 지방의 어수선한 사찰쯤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묘회가 있



‘간(干)’ 문자가 세워진 문화광장



나이나이묘의 정전과 야간 향을 태울 때의 모습



는 3월에는 100만 명 이상이 참배를 위해 방문하며 약 4,000만 위안(약 66억 원) 이상이 모금되는 등 베이징을 포함하여 허베이성 일대에서 명소로 꼽힌다.

부정경건축 유행의 배경

지방정부의 뒤틀린 업적관

경제발전의 제약 속에서 지름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여러 지방들에서 등장한 ‘산자이건축 만들기’이다. 지방의 지명도를 높여서 투자를 얻고 이슈화하기 위해 유명 건축을 표절한 건축 혹은 특산물품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축이 만들어진 것이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토지 개발권을 정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는 건축시장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민의는 살피지 않고 오로지 실적만을 따지는 탐욕에 의한 것이다. 건축에 대한 지식과 이해 없이 이뤄지는 지방정부 건축물들은 매년 추한 건축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백궁’으로 불리는 중국 전역의 법원 건물들

자료:李文純, 張杰, 劉宗軒(2013), “走出山寨建築怪圈——中國建築設計發展路在何方” 蔡人勇

일례로 ‘백궁(白宮)’으로 불리는 건물들 10여 개가 중국 전역에 산재해 있으며, 쑤저우(蘇州) 시의 경우 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56개의 세계 각국 유명 다리들을 복제해 만들었다.

‘키치’ 현상으로서 부정경건축의 유행

천자호텔이 CCTV본사 건물보다 일반 대중들에게 더 친근하고 호평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부정경건축이 지닌 키치의 속성 때문이다.

부정경건축은 키치 예술의 주요한 두 속성인 ‘달콤함’과 ‘익숙함’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들의 상투적 표현(cliché), 곧 익숙함으로 대상의 본질을 가리고 어떤 분위기만 남기며, 단순한 향수(simple enjoyment)같이 자기 스스로를 위한 환상을 창조한다. 심리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듯이 보이는 세계에 던져짐으로써 현실에서 생겨나는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시도한다. 부정경건축이 대중에게 환영받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대중들의 건축문화

국가적 차원의 건축·건설만으로 이뤄졌던 개혁 개방 이전 시대와 달리 풍부한 물자와 자금 능력으로 개인이나 사적 조직에서 산발적으로 자유롭게 건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중국 건설 현장이다. 더불어 새롭고 흥미로운 이미지를 쉽게 접하고 시각 자료들이 가득 찬 인터넷 시대의 틀 속에서 부정경건축은 그 내외적인 요건이 19세기 말 키치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던 때와 유사하게 자아 기만을 통해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부정경건축은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걸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쁜 예술(bad art)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나쁜 예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건축 이론이 좋은 건축과 나쁜 건축을 구별해 주는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부적절한 것이다.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축 본질에 대한 일면도 드러내 주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CCTV 본사 빌딩이 추한 건축물 순위에 들었을 때 국제고층건물협회에서는 이 건축물에 ‘우수 고층건물 상’을 수여하였다. 대중은 여전히 이 건물을 ‘칭바지 건물’이라고 놀리며, 오히려 친근하고 재미있는 차주전자 형태의 건축에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지금도 중국 어디에선가는 벽돌 하나가 올라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중국 건축이 직면한 과제의 핵심은 사회 건설을 이뤄내는 대중의 건축문화일 것이다.

참고문헌

- 李文炆, 张杰, 刘宗轩(2013), “走出山寨建筑怪圈——中国建筑
设计发展路在何方”, 工程建设与设计, 4期, pp.8~15.
- 梁建业(2015), “浅谈中国山寨建筑与历史传统的关系”, 兰台世
界, 36期, pp.11~12.
- 黄志免(2011), “山寨的谱系——中国建筑山寨史溯源”, 广西城
镇建, 11期, pp.12~19.
- 葛韵宇, 张云路, 林辰松(2015), “奇奇怪怪建筑的兴起——对中
国现代建筑艺术发展的思考”, 建筑与文化, 10期, pp.201~203.

- Karsten Harries(1968), *The Meaning of Modern Art: A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pp.74~83.
- 徐腾, 不正经历史研究所, “野生世界”, https://open.weixin.qq.com/connect/oauth2/authorize?appid=wx8cfdff818e686b9&redirect_uri=http%3A%2F%2Fkf.qq.com%2Ftouch%2Fsappfaq%2F150211YfyMVj150326iquI3e.html&response_type=code&scope=snsapi_base&state=123#wechat_redirect
- 中国十大丑陋建筑候选名单, <http://www.archcy.com/votes>